無記의 四句思惟와 記의 四諦觀 연구

신 병 삼*

목 차

I. 서론
II. 無記(avyākata)의 내용과 구조 분석
III. 기존 사상[外道; aññatitthiya]의 사유구조와 언어표현
IV. 四句사유의 解體인 記(vyākata)와 깨달음
V. 결론

요 약

붓다의 기존 사상[外道; aññatitthiya]에 대한 비판의 형태는 無記(avyākata)이다. 그래서 無記는 기존 사상에 대한 비판이면서 불교의 시작으로써 작용한다. 그래서 '왜 설명하지 않았으며[無記], 어떻게 설명했는가[記; vyākata]'를 통하여 붓다가 진리를 把持하고 가르침을 설파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形而上學(metaphysics)적 이론들에 대한 '붓다의 침묵'[無立場]이라고 언급하거나 다른 사상들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붓다는 침묵 대신에 붓다의 방식으로 명확히 대답[記]하면서 외도의 邪見을 논파했는데 그것은 정확히 붓다의 깨달음(sammāsambodhi)과 일치한다.

기존의 논문들은 주로 無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했다면, 본 논문은 Nikāya의 내용들을 통해서 역사적 상황 및 외도 비판적 견해와 병행하면서 無記의 학설을 연구하는데, 붓다의 대답[記]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한다. 왜냐하면 붓다가 '無記의 질문에 대하여, 왜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방법론적 대답을 선택했는가'는 경전에 나타난 붓다의 대답[記]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붓다의 깨달음은 진리인식임과 동시에 모든 反진리에 대한 파기선언이다. 붓다는 자신이 직접 깨달은 진리 이외에 다른 어떠한 진리도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깨달음의 선언은 모든 外道들의 사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 속에서 비판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表明은 無記로서 나타난다. 無記는 표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 現象世界는 有無(atthi-natthi)가 아닌 '生滅(samudaya-nirodha)의 法則'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한 붓다의 입장에서, 인간의 戱論적 사유형태인 有無라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無意味하기 때문에, 붓다는 "발생하고 나서 소멸하는 것만이 있다"고 표명하였다. 빛[明]이 비치면 어둠[無明]이 사라지듯이, 붓다는 有無의 구조인 邪見의 誤謬를 生滅이라는 깨달음으로 명확히 논파했다. 따라서 붓다의 깨달음은 외도의 체계인 4句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하는 외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면서, 生滅의 체계인 四聖諦가 붓다가 직접 깨달은 내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I. 서 론

* 동국대학교-서울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일반연구원

새로운 사상은 기존 사상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불교의 起源은 무엇인가? 불교가 붓다로부터 발생했을 때에도 당연히 기존 사상에 대한 비판이 前提된 상황 속에서 출발했다. 만약 그 당시에 올바른 眞理를 주장하는 사상이 있었다면 붓다는 그것의 追從者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진리의 주장자가 없었기 때문에, 홀로 보리수 아래에서 正覺을 이루고 새로운 사상을 선포하였다. 그러면 붓다의 기존 사상[外道; aññatitthiya]에 대한 비판의 형태는 무엇인가? 논자는 그것을 無記(avyākata)라고 본다. 곧 無記는 기존 사상에 대한 비판이자 불교의 시작이다. 그래서 '왜 설명하지 않았으며[無記], 어떻게 설명했는가[記; vyākata]'를 통하여 붓다가 진리를 把持하고 가르침을 설파한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논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形而上學(metaphysics)적 이론들에 대한 '붓다의 침묵'[無立場]이라고 언급[1]하거나 다른 사상들과 비교[2]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붓다는 침묵 대신에 붓다의 방식으로 명확히 대답[記]하면서 외도의 邪見을 논파했는데 그것은 정확히 붓다의 깨달음(sammāsambodhi)과 일치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는 주로 Nikāya의 내용들을 통해서 역사적 상황 및 외도 비판적 견해와 병행하면서 無記의 학설을 연구하는데, 기존의 논문들은 주로 無記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했다면[3], 본 논문은 붓다의 대답[記]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붓다가 '無記의 질문에 대하여, 왜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방법론적 대답을 선택했는가'는 경전에 나타난 붓다의 대답[記]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II. 無記(avyākata)의 내용과 구조 분석

正覺 이전에 붓다는 學習期(Brahmacārin)를 통해서 기존 사상[3베다 등]을 학습했고, 四門遊觀을 통한 6년간의 출가고행기간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선정수행과 외도들의 사상을 접했다.[4] 정각 이후에 붓다는 당시 일어난 이러한 思潮를 10無記의 형식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Dutiyesidatta-sutta에서 "세계는 영원하다 ~ [10가지] 등 62見(diṭṭhigata)이

---

1) Murti, T.R.V., *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London: George Allen&Unwin, 1958). Sharma, Chandra dhar, *The Advaita Tradition on Indian Philosohhy*(Delhi: Motilal Banarsidass, 1996) 등

2) Arthur B. Keith, *Buddhist Philosophy in India and Ceylon*(Oxford, 1923). E. Frauwallner, *History of Indian Philosopy*, Vol.1(tr. V.M.Bedekar)(Delhi: Motilal Banarsidass, 1973), 紀野 一義,『インド仏教における沈默の意味」(『印度學仏教學研究』26(13-2), 1965). 茨田通俊,「無記說等に現れる諸課題について」(『宗教研究」66卷 4輯,1993.3)._____, 「無記說と外教思想」(『佛教學セミナー』57號, 1993.5). 權五民, 「無記說(avyākata; skt.avyākṛta,vada) 攷: Mahāvīra의 相對論(Syādvāda)과 Sañjaya의 不可知論(ajñānvāda,혹은 詭辯論amarāvikkhepa)과 比較하여」(『東國大學校대학원研究論集』11, 1981) 등

3) K.N. Jayatilleke, *Early Buddhist theory of Knowledge*(GEORGE ALLEN&UNWIN LTD; London, 1963). David J. Kalupahana, *Causality-the central philosophy of Buddhism*(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5). David J. Kalupahana, *Buddhist philosophy: a historical analysis*(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4) 등

4) *Mahāpadāna-sutta*(D14), *Mahāparinibbāna-sutta*(D16), *Ariyapariyesanā-sutta*(M26), *Mahāsaccaka-sutta*(M36.), *Bodhirāja -kumāra-sutta*(M85), *Saṅgārava-sutta*(M100), *Uddaka-sutta*(S35:103), *Sukhumāla-sutta*(A3:38), *Paṭicchanna-sutta*(A3:129)

Brahmajāla-sutta에 설해져 있다"[5]라고 하는 점에서, 기존의 62見을 간략히 10가지로 분류했음을 알 수 있다. 62見은 過去 18見과 未來 44見인데,[6] 과거 18見은 前生을 기억하는 宿命通과 관련된 '현재의 존재 이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外道들의 대답이다. 미래 44見은 來世[死後]를 아는 天眼通과 관련된 '死後의 존재, 또는 현재 괴로운 상황을 벗어나는 涅槃은 무엇인가'에 대한 外道들의 대답이다.

그리고 Pañcattaya-sutta에는 62見의 변형된 형태인 미래 19見과 과거 16見인 35見이 있는데, 각각의 내용에 "오로지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idam eva saccaṁ, mogham aññam)[7]는 언급이 있다. Pāsādika- sutta에도 과거 16見과 미래 8見이 서술되어 있는데[8], 62見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리고 Diṭṭhi-saṁyutta의 25見[9]은 Ajita Kesakambalin, Pūraṇa Kassapa, Pakudha Kaccāyana 등의 사상과 상주론, 자아의 이론, 단멸론, 死後존재의 有無 등 10無記의 내용 및 62見과 대부분 흡사하다.

'如來 死後의 有無 四句'[10]만을 논의하기도 하는데, '갈애를 끊은 수행자의 死後'[11]와 동일한 관점에서 서술된다. 그외의 다른 내용들은 Lokāyatika(順世派)의 "①모든 것은 있다 ②모든 것은 없다 ③모든 것은 하나이다 ④모든 것은 다양하다"[12]는 4句가 있고, "①자아는 있는가? ②자아는 없는가?"[13]의 내용이 나타나기도 하며, "老死~識[十支緣起]은 누가 만드는가"와 관련해서 "①자신이 만든다 ②남이 만든다 ③자신이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한다 ④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원인없이 발생한다"[14]라는 4句가 있다. 그리고 '六觸處의 소멸 이후'와 관련해서 "①있다 ②없다 ③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④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15]라는 4句가 있기도 하고, "느낌은 ①前生의 業에 기인한 것이다[宿命論] ②神이 창조한 것이다[創造論] ③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無因論]"[16]라는 外道들의 세 가지 주장을 언급하는 것 등이 있다. 이처럼 10無記와 62見 등의 형태에서 주로 '①有 ②無 ③亦有亦無 ④非有非無'의 4句구조로 정형화된다.

無記의 중심주제는 外道들의 사상과 過去 未來의 時間, 세상의 상주성 및 想(saññā), 생명(jīva; 命)과 몸(sarīra; 身)의 同異 문제, 그리고 如來(tathāgata)의 死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데, 想은 非想非非想處(nevasaññānāsaññāyatana)와 想受滅(saññā-vedayita-nirodha)에서 수행체계와 관련된다.

III. 기존 사상[外道; aññatitthiya]의 사유구조와 언어표현

---

5) *Dutiyesidatta-sutta*(S41:3), *SN*.iv.286. "~sassato loko,~ dvāsaṭṭhidiṭṭhigatāni brahmajāle bhaṇitāni."

6) *Brahmajāla-sutta*(D1), *DN*.i.12~39, "1. 過去(pubbanta-kappikā) 18見 ⑴Sassatavāda; 一切常住論(4種) ⑵Ekacca sassatavāda; 一部常住論(4種) ⑶Antānantavāda;有限無限論(4種) ⑷Amarāvikkhepavāda;懷疑論(4種) ⑸Adhicc acasamuppannavāda;偶然發生論=無因論(2種), 2.未來(aparanta-kappikā)44見 ⑴Saññīvāda;想論(16種) ⑵Asaññī vāda;非想論(8種) ⑶N'evasaññīnāsaññīvāda; 非想非非想論(8種) ⑷Ucchedavāda;斷滅論(7種) ⑸Diṭṭhadhammani bbānavāda;現法涅槃論(5種)"

7) *Pañcattaya-sutta*(M102), *MN*.ii.228~238.

8) *Pāsādika-sutta*(D29), *DN*.iii.117~141.

9) *Diṭṭhi-saṁyutta*(S24), *SN*.iii.201~221

10) *Paraṁmaraṇa-sutta*(S16:12), *Khemā-sutta*(S44:1), *Anurādha-sutta*(S44:2), *Upagata-sutta*(S44:3), *Samudaya -sutta* (S44:4), *Pema-sutta*(S44:5), *Sabhiya-sutta*(S44:11), *Patilīna-sutta*(A4:38), *Abyākata-sutta*(A7:51) 등

11) *Kutūhalasālā-sutta*(S44:9). *SN*.iv.398~400.

12) *Lokāyatika-sutta*(S12:48), *SN*.ii.77.

13) *Atthatta-sutta*(S44:10), *SN*.iv.400~401.

14) *Acelakassapa-sutta*(S12:17), *Aññatarabrāhmaṇa-sutta*(S12:46), *Nalakalāpa-sutta*(S12:67), *Attabhāva-sutta*(A4:172), *Attakārī-sutta*(A6:38), *Sayaṁkata-sutta*(A6:95) 등

15) *Koṭṭhita-sutta*(A4:174), *AN*.ii.161~162

16) *Tittha-sutta*(A3:61), *AN*.i.173~177

無記의 형식에 대해서, 붓다는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있다[atthi; 有]는 것과 없다[natthi; 無]는 것, 두가지에 의존한다"[17]고 통찰하고 있다. 이처럼 無記의 형식은 ①'있다'[有]와 ②'없다'[無][또는 ①같다 ②다르다]라는 2句형식이다. 2句의 확장이 ③'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亦有亦無]와 ④'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非有非無]가 덧붙여진 4句이다. ③은 ①과 ②가 합쳐진 형식이고, ④는 ③의 不定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4句는 ①'있다'와 ②'없다'의 2句의 틀 속에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사유형태는 이 4句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중 어느 것이 자신의 의견으로 채택되면,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논쟁한다.

그런데 '62見→10無記→4句'의 틀로 간략히 인간의 사유를 규정짓는다는 점에서 4句를 분석하면, ①'있다'[有]는 것은 처음에는 없다[無]가 갑자기 발생되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음'이 前提된 "本有의 有"이기 때문에 常住論이다. ②'없다'[無]는 것은 '있는 것[有]이 사라져야 없다[無]'고 하는 것으로서 주로 '현생의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없어져버린다[斷滅]'는 의미에서 斷滅論인데, 본래 없는 "本無의 無"는 '있다'[有] '없다'[無]라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며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全無한 "本無의 無"는 형식상 "本無의 無"로만 표현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전혀 표현할 수가 없다.[18] ③'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亦有亦無]는 것은 '有이면서 無인 矛盾으로서 不可知論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懷疑論이다. ④'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非有非無]는 것은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우연히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無因論[偶然發生論]이다.[19] 그러므로 대부분의 인간 사유나 철학체계가 이 4句의 범주 속에 있는 한 그것은 상주론 등의 체계, 또는 그것들의 변형일 뿐이다.

이 ①有論[Atthikavāda; 常住論] ②無論[Natthikavāda; 斷滅論] ③亦有亦無論[Atthikanatthikavāda; 懷疑論] ④非有非無論[Nevatthikananatthikavāda; 無因論]이라는 4句 각각에 붓다 당시의 인도 사상 전체가 포괄된다. ①常住論[Sassatavāda]은 바라문교[20]와 Pakudha Kaccāyana[21]가, ②斷滅論[Ucchedavāda]은 Ajita Kesakambalin[22]이, ③懷疑論[Amarāvikkhepavāda]은 Sañjaya Belaṭṭhiputta[23]와 Nigaṇṭha Nātaputta[Jaina]가, ④無因論[Adhiccacasamuppannavāda]은 Pūraṇa Kassapa[24]와

---

17) *Kaccāyanagotta-sutta*(S12:15), *SN*.ii.17. "Dvayaṃnissito kho'yaṃ~ loko yebhuyyena atthitañceva natthitañca."

18) *Atthaatta-sutta*(S44:10)(*SN*.iv.400)에서는 "자아(atta)에 대해서 있다[有]고 하면 常住論(sassatavāda)이고, 없다[無]고 하면 斷滅論(ucchedavāda)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Kaccāyanagotta-sutta*(S12:15)(*SN*.ii.16)의 有(atthi)와 無(natthi)와 대해서, 그것의 주석서(*Srp*.ii.33)에서는 각각 常住論과 斷滅論으로 보고 있다. *Piṇḍolya-sutta*(S22:80) (*SN*.iii.91)에는 有見과 無見이 나오는데, 그것의 주석서(*Srp*.ii.303)에서도 각각 常住論과 斷滅論으로 보고 있다.

19) *Acelakassapa-sutta*(S12:17)(*SN*.ii.18)에 "④괴로움은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닌 원인없이 생겨난 것[無因論]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Timbaruka-sutta*(S12:18)(*SN*.ii.22)와 *Naḷakalāpa-sutta*(S12:67) (*SN*.ii.104)에도 거의 같은 구절이 있다.

20) *Ambaṭṭha-sutta*(D3), *Mahāli-sutta*(D6), *Pāṭika-sutta*(D24), *Kaṇṇakatthala-sutta*(M90), *Vāseṭṭha-sutta*(M98), *Sammasa-sutta*(S12:66), *Piṇḍolya-sutta*(S22:80), *Brāhmaṇa-sutta*(S55:12), *Tittha-sutta*(A3:61), *Brāhmaṇa-sutta*(A9:38) 등

21) *Sāmaññaphala-sutta*(D2), *Cūḷasāropama-sutta*(M30), *Mahāsakuludāyi-sutta*(M77), *Nānātitthiyasāvaka-sutta*(S2:30), *DaPiṇḍolya-sutta*(S22:80), *Pārileyyaka-sutta*(S22:81), *Esoattā-sutta*(S22:152), *Tittha-sutta*(A3:61) 등

22) *Sāmaññaphala-sutta*(D2), *Pāyāsi-sutta*(D23),. *Mahāsaccaka-sutta*(M36), *Sāleyyaka-sutta*(M41), *Apaṇṇaka-sutta*(M60), *Sevitabbāsevitabba-sutta*(M114), *Mahācattārīsaka-sutta*(M117), *Dahara-sutta*(S3:1), *Kosala-sutta*(A10:29) 등

23) *Sāmaññaphala-sutta*(D2) *Cūḷasāropama-sutta*(M30), *Mahāsaccaka-sutta*(M36), *Sandaka-sutta*(M76), *Mahāsakuludāyi-sutta*(M77), *Dahara-sutta*(S3:1), *Kutūhalasālā-sutta*(S44:9), *Pārileyyaka-sutta*(S22:81) 등

Makkhali Gosāla[Ājivika][25], 그리고 Upaniṣad의 "neti neti"[26]가 해당된다. 자이나교는 4句의 확장된 형태인 Syādvāda[睡語; 7가지 명제][27]를 가지고 상대적인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회의론적인데, 경전들[28]에서는 주로 자이나교의 고행주의나 행동[身業]중심주의적 사고를 비판한다.

생명[命]과 몸[身]의 同異문제는, 동일하다고 하면 몸이 무너지면 중생도 소멸되는 것이므로 斷滅論[無論]이고, 다르다고 하면 몸이 무너져도 중생은 죽지 않으므로 常住論[有論]이다.[29] 그리고 바라문교의 Ṛg-veda, Yajur-veda, Sāma-veda인 3베다(tevijja)에 대해서 붓다는 宿命通(pubbenivāsānussati-ñāṇa), 天眼通(cutūpapāta-ñāṇa), 漏盡通(āsavānaṁ khyaya-ñāṇa)의 三明으로서 재규정한다.[30] 그리고 神(Deva)의 개념에 있어서도 常住不變의 神이 아닌, 輪廻하고 壽命을 지닌 변화[生滅]의 대상으로 서술한다[31]. 또한 62見 중의 쾌락주의자[五欲樂 pañcakāmaguṇā][32]나 수정주의자[四禪定; 수행주의][33] 등이 現法涅槃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붓다는 '지금여기에서의 解脫'인 漏盡通을 現法涅槃으로 제시한다.[34]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4句 중 하나만을 진리라고 채택하고 저마다 각각 다른 체계를 옳다고 여겨서 서로 모순되는 여러 가지 '眞理'들을 발생시킨다. 붓다는 "나는 그들이 말하는 '~이다[~이 아니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라고 認定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다른 想(saññā)을 가진 어떤 중생들도 있기 때문이다"[35]라고 말한다. 서로 다른 견해들은 모두 다른 想에 바탕을 둔 상대적인 것일 뿐이어서, 그러한 상대적 견해로는 명확한 진리를 체득할 수 없음을 간파한 것이다.

IV. 四句사유의 解體인 記(vyākata)와 깨달음

---

24) *Sāmaññaphala-sutta*(D2), *Sandaka-sutta*(M76), *Mahāsakuludāyi-sutta*(M77), *Abhaya-sutta*(S46:56), *Soṇakāyana -sutta*(A4:233), *Chaḷabhijāti-sutta*(A6:57), *Brāhmaṇa-sutta*(A9:38), *Tittha-sutta*(A3:61), *Verañja-sutta* (A8:11) 등

25) *Sāmaññaphala-sutta*(D2), *Anaṅgaṇa-sutta*(M5), *Ariyapariyesanā-sutta*(M26), *Bodhirājakumāra-sutta*(M85), *Nānātitthiyasāvaka-sutta*(S2:30), *Dahara-sutta*(S3:1), *Tittha-sutta*(A3:61), *Ājīvaka-sutta*(A3:72), 등

26) *Bṛhadāraṇyaka Upaniṣad*, 3.9.26

27) Sarvepalli Radhakrishnan, *Indian philosophy* V.1.(New York:Humanities Press, 1977), pp.302~3. "①syād asti ②syād nāsti ③syād asti nāsti ④syād avaktavya ⑤syād asti avaktavya ⑥syād nāsti avaktavya ⑦syād asti nāsti avaktavya"

28) *Sāmaññaphala-sutta*(D2), *Pāsādika-sutta*(D29), *Saṅgīti-sutta*(D33), *Cūḷadukkhakkhandha-sutta*(M14), *Sāmagāma-sutta* (M104), *Sattajaṭila-sutta*(S3:11), *Asibandhakaputta-sutta*(S42:6), *Chaḷabhijāti-sutta*(A6:57), *Brāhmaṇa-sutta*(A9:38) 등

29) *DAṬ*.i.451

30) *Ambaṭṭha-sutta*(D3), *Aggañña-sutta*(D27), *Tevijjavacchagotta-sutta*(M71), *Aṅgulimāla-sutta*(M86), *Vāseṭṭha-sutta*(M98), *Aggika-sutta*(S7:8), *Puṇṇa-sutta*(S35:88), *Tikaṇṇa-sutta*(A3:58), *Doṇa-sutta*(A5:192) 등

31) *Brahmajāla-sutta*(D1), *Mahānidāna-sutta*(D15), *Saṅgīti-sutta*(D33), *Gayā-sutta*(A8:64) 등

32) *Sambahula-sutta*(S4:21), *SN*.i.117. *Pātāla-sutta*(S36:4), *SN*.iv.206 등

33) *Kassapasīhanāda-sutta*(D8), *Pāṭika-sutta*(D24), *Mahāsīhanāda-sutta*(M12), *Cūḷadhammasamādāna-sutta* (M45), *Sattajaṭila-sutta*(S3:11), *Acela-sutta*(S41:9), *Pariyāya-sutta*(S46:52), *Paviveka-sutta*(A3:92) 등

34) *Cūḷadukhakkhandha-sutta*(M14), *Bodhirājakumāra-sutta*(M85), *Hetu-sutta*(S51:11), *Magga-sutta*(S51:21), *Iddhipāda-sutta*(A5:68)

35) *Pāsādika-sutta*(D29), *DN*.iii.138. " ~'idameva saccaṃ. Moghamaññanti, taṃ tesaṃ nānujānāmi. Taṃ kissa hetu? Aññathāsaññino pi hettha ~ santeke sattā."

無記說에 대한 붓다의 방법론적 대답은 5가지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⑴발생 소멸[生滅]의 측면은 六觸緣起와 五蘊의 生滅 및 12연기의 生滅[36] 등의 내용이다.

六觸緣起적 관점은 "62見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갈애에 빠져서 느낀 것(vedayita)일 뿐이고~六根을 통해 ~발생하는 접촉[觸]으로 인해 邪見의 느낌[受]을 경험하는" 六入>觸>受>愛>取>有>生>老死의 八支緣起의 형태를 가진다. 그러면서 "六根의 발생과 소멸, 유혹(assāda; 味), 재난(ādīnava; 患), 벗어남(nissaraṇa; 離)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면, 견해를 넘어서게 된다"[37]라고 하면서, 六根에 대한 명확한 체득 속에서 62見이라는 邪見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五蘊의 관점[38]은 오온의 소멸을 알지 못해서 10無記 등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오온의 소멸을 알면 10無記 등의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다.

12연기적 관점은 '괴로움을 만드는 주체'의 4句에 대해서, "행위자[주체]와 경험자[대상]가 동일하다면 괴로움은 자신이 만든 것으로서 常住論[有論]이 되고, 행위자와 경험자가 다르다면 괴로움은 남이 만든 것으로서 斷滅論[無論]이 된다"[39]라고 하면서 이러한 4句의 견해들은 모두 양극단으로서, 붓다는 양극단을 떠나서 中道인 12연기의 발생[流轉門]과 소멸[還滅門]을 가르친다.

⑵'涅槃과 記의 관계성 : "설명하지 않는[無記] 이유는 그것은 有益(atthasaṃhita)하지 않고, 根本梵行(ādibrahmacariya)에 맞지 않고, 厭惡(nibbidā), 離欲(virāga), 消滅(nirodha), 寂滅(upasama), 곧바른 앎(abhiññā; 勝智), 正覺(sambodha), 涅槃(nibbāna)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명하는 것[記]은 四聖諦이다.~"[40]라고 진술한다. 특이한 점은 "이 과거와 관련된 견해의 토대들과 이 미래와 관련된 견해의 토대들을 벗어나고 초월하기 위해서 ~나는 이 四念處 수행을 가르치고 선언한다"[41]고 하는 것인데, 身念處인 數息觀(ānāpāṇa-sati) 등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生滅을 지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술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外道들은 무기의 견해 중 하나를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ekaṁsika dhamma)으로서 알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붓다는 '무기의 견해 중 어느 것도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지 못한 법'으로서 그에게 있어 "하나의 지향점을 가진 법은 四聖諦이다"[42]라고 말하고 있다.

⑶如來 死後의 문제[43]에 대해서는 "如來는 '이것이 ①五蘊 ②오온의 발생 ③오온의 소멸이다'라고 관찰한다. 如來는 모든 환상(maññita), 모든 我나 我所를 만드는 것, 慢睡眠(mānānusaya)을 ~소멸시켜서 집착없이 해탈한다. ~불은 땔감을 조건으로 하여 타오르고 땔감이 공급되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물질 등 오온으로 如來를 묘사하려고 하지만, 如來는 오온을 버렸다. ~如來는 물질 등 오온에서 해탈하여 심오하여 ~마치 커다란 바다와 같다. 그래서 如來 死後 有無의 4句는 타당하지 않다"[44]라고 하면서 인간의 언어표현은 五蘊이라는 매개를 통해 가능하지만, 如來는 五蘊에서

---

36) *Acelakassapa-sutta*(S12:17), *Aññatarabrāhmaṇa-sutta*(S12:46), *Lokāyatika-sutta*(S12:48), *Nalakalāpa-sutta*(S12:67) 등

37) *Brahmajāla-sutta*(D1), *DN*.i.39~46.

38) *Pema-sutta*(S44:5), *Ārāma-sutta*(S44:6), *SN*.iv.387~391 등

39) *Acelakassapa-sutta*(S12:17), *SN*.ii.18

40) *Poṭṭhapāda-sutta*(D9), *Pāsādika-sutta*(D29), *Cūlamālunkyaputta-sutta*(M63), *Aggivacchagotta-sutta*(M72), *Paraṁmaraṇa-sutta*(S16:12) 등

41) *Pāsādika-sutta*(D29),*DN*.iii.141."~imesaṃ ca~pubbantasahagatānaṃ diṭṭhinissayānaṃ imesaṃ ca aparanta-sahagatānaṃ diṭṭhinissayānaṃ pahānāya samatikkamāya ~mayā ime cattāro satipaṭṭhānā desitā paññattā ti.~"

42) *Poṭṭhapāda-sutta*(D9) *DN*.i.191~192

43) *Aggivacchagotta-sutta*(M72), *Khemā-sutta*(S44:1), *Anurādha-sutta*(S44:2), *Upagata-sutta*(S44:3), *Kutūhalasālā-sutta*(S44:9), *Sabhiya-sutta*(S44:11) 등

解脫해서 輪廻(saṁsāra)의 조건인 執着과 渴愛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으로서 여래의 死後에 대해서 有無의 4句로 설명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4)무아론적인 입장[45]은 전반적으로 '有身見이나 我見(attadiṭṭhi)이 있기 때문에 10無記나 62見 등의 견해가 발생하지만, 無我를 체득하면 그러한 無記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다.

(5)四聖諦적 관점[46]은 "①五蘊 ②오온의 발생[生] ③오온의 소멸[滅] ④오온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aññāṇā)~직접적으로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apaccakkhakammā)에 10無記 등의 견해가 발생한다"[47]라는 점에서, 五蘊의 사성제적 관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不在 속에서 無記 등의 견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오온 대신에 견해(diṭṭhi) 등[48]을 사성제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성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속에서 10無記 등의 견해가 소멸해서 해탈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붓다의 표현방식은 전반적으로 발생[生]과 소멸[滅]의 원리와, 그것의 확장인 四諦觀이다. 일반사람들이나 외도들이 사유하는 상대적 관점인 4句의 형식으로는 올바른 진리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간파하고 붓다는 生滅의 원리를 진리로서 제시한다. 그래서 붓다는 "세상의 발생[samudaya; 生]을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대해서 없다[natthi; 無]는 것이 사라지고, 세상의 소멸[nirodha; 滅]을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대해서 있다[atthi; 有]는 것이 사라진다"[49]라고 하면서, 有無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인 12연기의 발생[流轉門]과 소멸[還滅門]을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발생[samudaya]을 직시하면 단멸론[無論]이 제거된다. 왜냐하면 A가 B라는 조건을 만나서 발생했다면, 조건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斷滅해서 완전히 없어져버린 것[全無]'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멸[nirodha]을 통찰하면 상주론[有論]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A가 B라는 조건을 만나서 소멸했다면, 조건에 의해 소멸했기 때문에 '본래부터 있어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常住'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懷疑論[亦有亦無論]에 있어서는, '生滅'이라는 명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懷疑論의 破棄가 가능하고, 無因論[非有非無論]에 대해서는 '원인[조건]에 의해서 발생[生]하고, 결과적으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소멸[滅]된다'는 의미에서 無因論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 발생한 것[生法]은 그 모두가 소멸하는 것[滅法]이다"(yaṃ kiñci samudayadhammaṃ sabbantaṃ nirodhadhammam)[50]라는 것을 '진리에 대한 안목[法眼;dhammacakkhu]'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生滅, 즉 無常(anicca)을 붓다가 진리[法]로서 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生滅이 확장된 형태인 四諦觀은 '①A[苦聖諦] ②A의 발생[生][集聖諦] ③A의 소멸[滅][滅聖諦] ④A의 소멸에 이르는 길[道聖諦]'이라는 틀로 구성되는데, 경전들[51]에서는 A에 세계나 자아 등의 주제나

---

44) *Aggivacchagotta-sutta*(M72), *MN*.i.483~489.

45) *Sallekha-sutta*(M8), Alagaddūpama-sutta(M22), *Diṭṭhi-saṁyutta*(S24), *Dutiyesidatta-sutta*(S41:3), *Āyatana-sutta*(S44:7), *Khandha-sutta*(S44:8), *Atthatta-sutta*(S44:10) 등

46) *Nivāpave-sutta*(M25), *Pañcattaya-sutta*(M102), *Kaccāyanagotta-sutta*(S12:15), *Vacchagotta-saṁyutta*(S33), *Samudaya-sutta*(S44:4), *Abyākata-sutta*(A7:51) 등

47) *Vacchagottasaṁyutta*(S33), *SN*.iii.257~262

48) *Abyākata-sutta*(A7:51), *AN*.iv.67~70

49) *Kaccāyanagotta-sutta*(S12:15), *SN*.ii.17, "Lokasamudayañca kho~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Lokanirodhaṃ kho~yathābhūtaṃ sammappaññāya passato yā loke natthitā, sā na hoti."

50) *Ambaṭṭha-sutta*(D3), *Kūṭadanta-sutta*(D5), *Mahāpadāna-sutta*(D14), *Sakkapañha-sutta*(D21), *Cūḷarahūlovāda-sutta*(M147), *Pañcattaya-sutta*(M102), *Nakhasikhā-sutta*(S13:1), *Paṭhamagilāna-sutta*(S35:74), *Rāhuḷovāda-sutta*(S35:121), *Dhammacakkapavattana-sutta*(S56:11) 등

51) 'A'의 자리에 苦, 번뇌(漏)(D2), 有身(D33), 12연기의 각지, 食(āhāra)(M9), 身受心法, 五取蘊(M10), 五蘊(M72), 睡眠(anusaya)(M148), 四大(S14:39), 이득과 명예와 칭송(S17:27), 業(kamma)(S35:146), 탐진치(A3:68), 세상(loka)(A4:23), 감각적 욕망(kāma)(A6:63), 견해(diṭṭhi), 갈애에서 나온 것, 인식에서 나온 것, 생각에서 나온

사상체계 등을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流轉門인 緣起의 발생[生]하는 측면인 集聖諦를 통해서 斷滅論[無論]이 해체되고, 還滅門인 緣起의 소멸[滅]하는 측면인 滅聖諦를 통해서 常住論[有論]이 해체된다.

그리고 붓다의 대답의 내용은 '유혹[味]과 재난[患]과 벗어남[離], 緣起(paṭiccasamuppāda), 生滅, 中道(majjhimapaṭipadā), 사성제, 무아론 및 윤회의 조건이 소멸된 如來의 死後' 등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정확히 붓다의 깨달음과 일치한다. 붓다 자신이 "나는 ~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無上正等覺을 올바로 원만히 깨달았다고 선언하였다"(~yathābhūtaṃ abbhaññāsiṃ, ~anuttaraṃ sammāsambodhiṃ abhisambuddho paccaññāsiṃ)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유혹 재난 벗어남[52]과 연기[53], 生滅[54], 중도[55], 사성제[56] 등을 깨달았다"[57]고 말하고 있다.

"유혹(assāda; 味)이라는 것은 대상을 조건으로 즐거움과 쾌락이 발생하는 것이고, 재난(ādīnava; 患)이라는 것은 대상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한다는 것이며, 벗어남(nissaraṇa; 離)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욕망(chanda)과 탐욕(rāga)을 제거하는 것"[58]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유혹[味]은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탐진치적 요소로서 苦聖諦와 集聖諦[生]적 측면이고, 재난[患; ādīnava]은 어원적으로는 苦聖諦적 측면이 강하지만 의미상 '변화'라는 측면에서 無常[生滅]에 대한 깨달음인 四聖諦의 전반적인 측면이며, 벗어남[離]은 번뇌의 소멸로서의 열반인 滅聖諦[滅]적 측면이다.

無我는 "無常[生滅]하니 괴롭고[苦], 괴로우니 無我이다"[59]라는 '無常 → 苦 → 無我'의 형태로서 서술되고 있는 점에서, 무아는 무상[生滅]법에 당연히 뒤따르는 귀결점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래서 그 변화[無常] 때문에 괴로운데, 그 괴로움의 主體는 '나'(我; attan)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幸福論의 입장에서 '나'(我)는 행복[樂]을 추구하는 주체이고, 괴로움[苦]에 대해서는 멀리 떠나고자 하기[離苦得樂] 때문이다. 그런데도 괴롭다면 행복을 추구하는 주체의 意志가 아니고, 행복추구자의 의지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행복추구자의 주체성이 부정된다. 그래서 의지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無我(anattan)이다.

그리고 如來의 死後의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윤회하게 하는 조건인 집착과 갈애가 완전히 사라진-연료가 다 타고 없어져서 불이 꺼진 것과 같은-윤회에 대한 조건이 소멸[滅]한, 열반상태인 如來에 대해서 有無의 4句로서 死後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서, 조건적 소멸의 입장으로서 生滅의 체계와 일치한다. 그래서 여래의 번뇌 소멸은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斷滅論[無論]과는 다른, 환멸연기적 측면[滅聖諦]인 윤회하는 조건의 소멸이다.

것, 사량분별에서 나온 것, 취착에서 나온 것, 나중에 후회할 일(A7:51) 등이 나타난다.

52) *Pubbesambodha-sutta*(S14:31), *Paṭhamāssāda-sutta*(S22:26), *Paṭhamasambodha-sutta*(S35:13), *Pubbe-sutta*(S36:24), *Pubbepariyesanā-sutta*(A3:101), *Assāda-sutta*(A3:102) 등

53) *Mahāpadāna-sutta*(D14), *Ariyapariyesanā-sutta*(M26), *Nagara-sutta*(S12:65) 등

54) *Mahāpadāna-sutta*(D14), *Nagara-sutta*(S12:65) 등

55) *Dhammacakkapavattana-sutta*(S56:11), *SN*.v.420~423 등

56) *Mahāparinibbāna-sutta*(D16), *Cūḷadukkhakkhandha-sutta*(M14), *Nagara-sutta*(S12:65), *Loka-sutta*(A4:23) 등

57) 그 이외의 다른 깨달음의 내용 등은 '漏盡通[M14, M85, S51:11, S51:21, A5:68], 想受滅[M26, S54:8, A9:41], 戒定慧解脫[A4:1], ,解脫知見[M14, A8:11], 7가지 淫行에 족쇄의 제거[A7:47], 神들에 대한 8가지 연속적인 知見의 淸淨[A8:64]'등이 있다. 누진통, 상수멸, 해탈지견은 번뇌의 제거라는 동일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누진통은 주로 사성제에 대한 체득으로 설명되고 있다. 想受滅(saññā-vedayita-nirodha)은 62見의 중의 미래 44견 중 死後에 想(saññā)과 관련된 견해들이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受는 괴로운 느낌[苦受]과 관련된 '想과 受의 조건적 소멸[滅]'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58) *Paṭhamasambodha-sutta*(S35:13), *SN*.iv.6

59) *Susīmaparibbājaka-sutta*(S12:70), *Yadanicca-sutta*(S22:15), *Paṭhamājjhattānicca-sutta*(S35:1) 등

V. 결 론

붓다의 깨달음은 진리인식임과 동시에 모든 反진리에 대한 파기선언이다. 붓다는 자신이 직접 깨달은 진리 이외에 다른 어떠한 진리도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깨달음의 선언은 모든 기존 사상[外道]에 대한 부정적 입장 속에서 비판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表明은 無記(avyākata)로서 나타난다. 無記는 표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 現象世界는 有無(atthi-natthi)의 법칙이 아닌 '生滅(samudaya-nirodha)의 法則'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한 붓다의 입장에서, 인간의 戱論(papañca)적 사유형태인 有無라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無意味하기 때문에, 眞理인 生滅 즉 無常法으로서 표현한 것이다. 빛[明]이 비치면 어둠[無明]이 사라지듯이, 붓다는 有無의 구조인 邪見의 誤謬를 生滅이라는 깨달음으로 명확히 논파했다. 따라서 붓다의 깨달음은 외도의 체계인 4句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하는[無記] 외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면서, 生滅의 체계인 四聖諦가 붓다가 직접 깨달은 내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주제어 : 붓다, 記, 無記, 眞理, 깨달음, 外道, 有無(atthi-natthi), 生滅(samudaya- nirodha), 戱論(papañca), 無常法, 四句, 四聖諦

Abstract

A Study on the Four Phrases of Avyākata and the Four Noble Truths of Vyākata

Byoung Sam Shin

Reasercher, Institute of Buddhist Texts & Culture Content,
Dongguk Univ-Seoul

The Buddha's enlightenment is both the announcement of the truth and the denouncement of all counter-truths. The Buddha could not find any other truths but his own truth. Therefore his proclamation of the truth was a criticism of all existing thoughts from the negative viewpoint, which was actually expressed in the unanswered questions(avyākata). Avyākata is not no-expression, but an expression of the truth of arising-ceasing(samudaya-nirodha), i.e., principle of impermanence. For the Buddha realized that the phenomenal world exists no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atthi/natthi(being/non-being), but that of arising-ceasing (samudaya-nirodha), it was wrong and meaningless for him to response to the unreasonable atthi-natthi, which was a kind of conceptual proliferation(papañca). The Buddha defeated the fallacy of erroneous view based on atthi-natthi structure through his enlightenment of samudaya-nirodha, just like the darkness disappears when the light appears. Therefore, the Buddha's enlightenment was a harsh criticism of non-Buddhists, refusing to discuss the Four Phrases(catu-koṭika) of their thought system, as well as an expression of the Four Noble Truths(catu-ariya-sacca) as his own realization.

Key words: avyākata, Vyākata, Buddha, enlightenment, truth, arising-ceasing (samudaya-nirodha), atthi/natthi(being/non-being), conceptual proliferation (papañca), Four Phrases(catu-koṭika), Four Noble Truths(catu- ariya-sacca)

논문투고일: 2009.11.30. 심사완료일: 2009.12.16. 게재확정일: 2009.12.18.